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박 선 영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이정윤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박 선 영

인 준 서

박선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5월

심사위원장.....(인)

심사위원.....(인)

심사위원.....(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거부민감성, 자기침묵, 우울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전북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400명(남=184, 여=216)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 질문지(CNS), 거부민감성 질문지(RSQ), 자기침묵 질문지(STSS), 우울감 질문지(CES-D)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 자기침묵, 우울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변인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변인 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감에 대한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순차적 이중매개모델 분석 절차에 따라 매개분석을 시행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했다. 즉, 내현적 자기애는 직접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거부민감성이 매개하여 간접적으로도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우울감 감소를 위해 개입해야 할 치료적 요인을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내현적 자기애, 거부민감성, 자기침묵, 우울감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 | |
|------------------|---|
| 1. 연구의 필요성 | 1 |
| 2. 연구문제 | 7 |
| 3. 연구모형 | 8 |

II. 이론적 배경

| | |
|-----------------------------|----|
| 1. 내현적 자기애 | 9 |
| 1) 자기애의 개념 | 9 |
| 2)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 | 13 |
| 2. 우울감 | 14 |
| 1) 우울감의 개념 | 14 |
| 2)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감의 관계 | 17 |
| 3. 거부민감성 | 19 |
| 1) 거부민감성의 개념 | 19 |
| 2)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의 관계 | 21 |
| 3) 거부민감성과 우울감의 관계 | 23 |
| 4. 자기침묵 | 25 |
| 1) 자기침묵의 개념 | 25 |
| 2)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침묵의 관계 | 27 |
| 3) 자기침묵과 우울감의 관계 | 29 |
| 4)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의 관계 | 31 |

III. 연구방법

| | |
|----------------------|----|
|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 33 |
| 2. 측정도구 | 34 |
| 3. 자료 분석 | 38 |

IV. 연구결과

| | |
|--|----|
|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 39 |
| 2.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 40 |
| 3.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의 매개 효과 검증 | 41 |

V. 논의

| | |
|----------------------------|----|
| 1. 논의 | 46 |
| 2.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 | 51 |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 | |
|--|----|
|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33 |
| 표 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 35 |
| 표 3. 거부민감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 36 |
| 표 4. 자기침묵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 37 |
| 표 5.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 39 |
| 표 6.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 40 |
| 표 7.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 42 |
| 표 8. 간접효과 Bootstrapping 분석결과 | 45 |

그림 목 차

| | |
|----------------------------|----|
| 그림 1. 가설 2-1 연구모형 | 8 |
| 그림 2. 가설 2-2 연구모형 | 8 |
| 그림 3. 가설 2-3 연구모형 | 8 |
| 그림 4. 가설 2-1 매개효과 검증 | 43 |
| 그림 5. 가설 2-2 매개효과 검증 | 43 |
| 그림 6. 가설 2-3 매개효과 검증 | 44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과 개인 정신 건강상의 취약성으로 인해 각종 심리 문제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보건복지부, 2015). 그중에서 우울감은 침울한 기분, 흥미 상실, 무기력 및 무가치함 등을 나타내는 정서장애로(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현대인이 경험하는 흔한 심리 장애 중 하나이다(Pinto-Gouveia, Matos, Castilho, & Xavier, 2014).

우울감은 발달 단계 중 특히 청소년 후기 또는 성인 초기인 대학생 시기에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11; 조맹제 등, 2011; Vaillant, 2002;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2012; APA, 2013). 최근 대학교 내 상담센터를 찾은 학생 중 우울감을 이유로 상담을 희망한 학생이 41.2%에 달했는데, 8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하면 그 비율이 4.2% 높아졌다. 이밖에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학생도 20.5%로, 이는 대학생 5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음을 의미한다(AUCCCD, 2016). 대학생들은 대학 진학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확장되면서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많은 대학생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친밀한 관계 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것은(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2009;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2013), 대학생들의 상당수가 대인관계의 고충으로 인해 우울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학생 시기의 우울감

은 성인기까지 이어져 만성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의 우울감을 초기에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우울감은 자기 몰두라는 특성을 가지며(Grant, Franklin, & Langford, 2002; Jordan, Peter, Allison, Roger, & Martin, 2002), 특히 부정적인 자기 개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훈진, 2000a, 2000b; Valiente, Romero, Hervas, & Espinosa, 2014). 자기에 대한 과도한 몰입과 부정적 평가 및 이로 인한 낮은 자존감은 내현적 자기에가 높은 경우 흔히 보고되는 특성이다(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Atlas & Them, 2008; Watson, Sawrie, Greene, & Arrendondo, 2002).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성격의 취약성으로 인해 자신이 정해놓은 높은 기대치에 자신의 수행이나 업적이 도달하지 못한 것 같이 느끼는데, 이를 도저히 남의 탓으로 돌릴 수 없을 때 극심한 우울감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석만, 한수정, 2000). 이들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예상하여 타인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반응에 쉽게 상처를 받는 등 과민하여 부적응적 정서를 자주 느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다(권석만, 한수정, 2000; 권희영, 홍혜영, 2010; Lapsley & Aalsma, 2006).

이처럼 내현적 자기에가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밝혀졌으나 그 과정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의 매개변인에 대한 여러 연구가 수행됐으며, 그 결과로 수치심, 적대감, 자기 비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소극적 대처,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 반추 반응양식, 비합리적 신념, 자기체서 동기, 자기고양 동기, 자기 불일치 등의 매개변인이 확인되었다(곽유미, 2015; 하은혜, 곽진영,

2010; 권희영, 홍혜영, 2010; 이지원, 장은영, 2011; 나빛나, 장성숙, 2016; 이진숙, 현명호, 2012). 또한, 이들은 제3의 매개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더욱 다양한 심리 내적인 매개 변인을 파악하는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감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거부민감성(rejection-sensitivity)과 자기침묵(self-silencing)을 고려해보고자 하였다.

거부민감성이란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란 불안한 기대를 하다가 거절을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인지-정서적 과정이다(Feldman & Downey, 1994). 따라서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상대방의 악의 없는 행동조차 고의적인 거절로 지각하여 예민하게 반응하는 양상을 보인다(Downey, Mougios, Ayduk, London, & Shoda, 2004). 거부민감성은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대적 반응이라는 점에서 자기애와 구별되지만, Bowlby의 내적작동모델에 따라 발달한 심리적 기제라는 점에서 자기애와 관련성을 보인다(이경주, 황순택, 2013).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은 부모로부터 받은 비일관적인 양육 경험으로 인해 거부에 대한 불안이 심한 편인데(Hendin & Check, 1997), 이는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기인한 타인에 대한 민감성, 타인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될 것이라는 방어적 기대가 발달하여 모호한 거부 단서에도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거부를 피하고자 한다(박우람, 홍상황, 2015).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정남, 2015; 박우람, 홍상황, 2015; 이경주, 황순택, 2013).

또한, 거부민감성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거부를 지각하면, 분노나 적개심 등의 정서 또는 행동의 과잉반응을 보이

며 이후 신경증이나 우울감을 나타낼 수 있다(류혜라, 박기환, 2014; 이희경, 김경희, 이홍권, 2014; Levy, Ayduk, & Downey, 2001; Ayduk, Downey & Kim, 2001; Corey, Melissa, & Rachael, 2006).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버림받을까 두려워 상대방에게 과도한 확인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확인 추구는 관계를 깨뜨리고 이후의 우울감을 더 악화시킨다(Ayduk, Downey, & Kim, 2001). 이렇듯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감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결과가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나영, 조유진, 2009; 류혜라, 박기환, 2014; Bergevin & Tanya, 2003; Mellin, 2008).

한편, 자기침묵이란 관계 속에서 원활하게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제한하는 행동으로써 이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복합적인 인지 도식과 행동유형, 정서적인 반응들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이다(Jack, 1991). 자기침묵은 자기에의 취약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내면의 취약한 자기에 상처 입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빈번히 부적응적인 수동적 방어기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Collins & Stukas, 2008; Mehdizadeh, 2010). 이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가 외부 평가에 대한 민감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외부로부터의 칭찬과 인정으로 자신의 가치감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즉, 타인의 경탄을 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억압하는 자기침묵을 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Collins & Stukas, 2008; Morf & Rhodewalt, 2001; Sedikides, Campbell, Reeder, Elliot, & Gregg, 2002; Cooper, 1998; Dickinson & Pincus, 2003).

이러한 자기침묵은 자기희생과 자기부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 가치감을 낮추고, 결국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Remen, Chambless, &

Rodebaugh, 2002). 자기침묵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반대 의견이나 체면을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가능한 회피하고자 한다. 또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신적 표상은 다른 사람들로 부터 그들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하게 만들고, 불안 증상이나 회피와 같은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Rapee & Abbott, 2007). 회피 중심의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 증상이 높다는 연구결과(송지향, 임영진, 2015; Sydenham, Beardwood, & Rimes, 2017)를 통해 자기침묵 또한 우울감을 촉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지나치게 남에게 맞추는 행동이나 비주장성, 자기희생적 행동 등을 특징으로 하는 순응적 대인관계 유형(submissive interpersonal style)은 우울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실험 6개월 이후의 우울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Pearson, 2010).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인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주로 자기침묵(self-silencing)을 부적응적 대처 방식으로 사용한다(Ayduk, Gyurak & Luerksen, 2008; Harper, Dickson, & Welsh, 2006).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억압하는데(Ayduk, May, Downey, & Higgins, 2003; 임정민, 오경자, 2016; 박혜련, 손은정, 2011), 이로 인해 대인관계 속에서 깊은 친밀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서표현이 필수적이거나,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들은 거절에 대한 매우 작은 단서에도 회피 반응을 나타내 사회적 철수를 일으키고 관계에서 더욱 고립되는 경향을 보였다(London, Downey, Bonica, & Paltin, 2007). 따라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침묵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며, 이에 따라 우울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신아, 2013; Harper, Dickson, & Welsh,

2006; Thomas & Bowker, 2015).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 거부민감성, 자기침묵은 서로 복잡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그 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으며, 특히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 간의 구조적 관계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아직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울감이 급증하는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을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감의 매개 변인으로써 살펴보고자 하며, 나아가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가 높은 거부민감성을 보이게 되고, 이는 자기침묵으로 이어져 결국 우울감을 높일 것이라는 순차적 매개효과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의 단일 매개효과 및 순차적 매개효과가 확인될 경우, 내현적 자기애라는 성격적 요인을 굳이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거부민감성 또는 자기침묵을 줄임으로써 우울감을 낮출 수 있는 치료전략의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우울의 예측 변인으로서 내현적 자기애뿐 아니라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을 함께 관련지어 살펴보는 것은 임상적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서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내현적 자기애를 선행변수로, 우울감을 결과변수로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을 단일 및 순차적 매개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내현적 자기애, 우울감, 거부민감성, 자기침묵은 관계가 있는가?

가설 1-1. 내현적 자기애는 우울감과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내현적 자기애는 거부민감성과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침묵과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거부민감성은 우울감과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5. 자기침묵은 우울감과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6. 거부민감성은 자기침묵과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인가?

가설 2-1.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감의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2-2.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감의 관계를 자기침묵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2-3.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감의 관계를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이 순차적으로 이중매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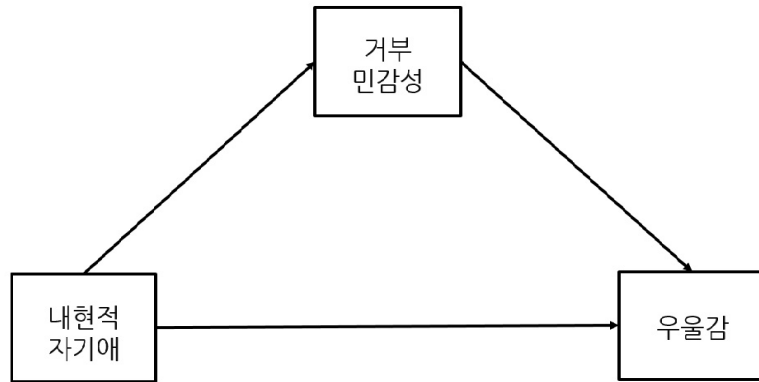


그림1. 가설 2-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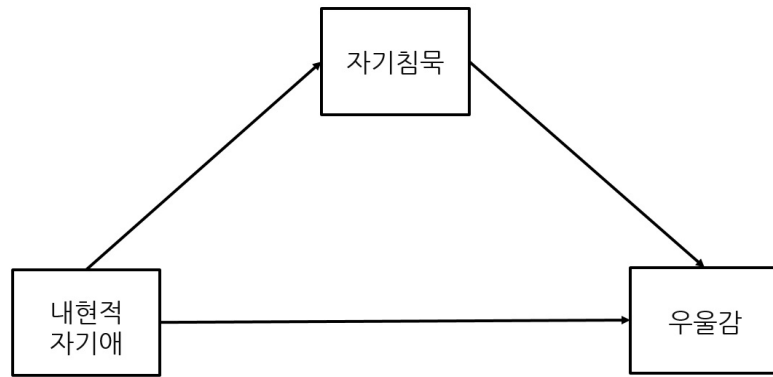


그림2. 가설 2-2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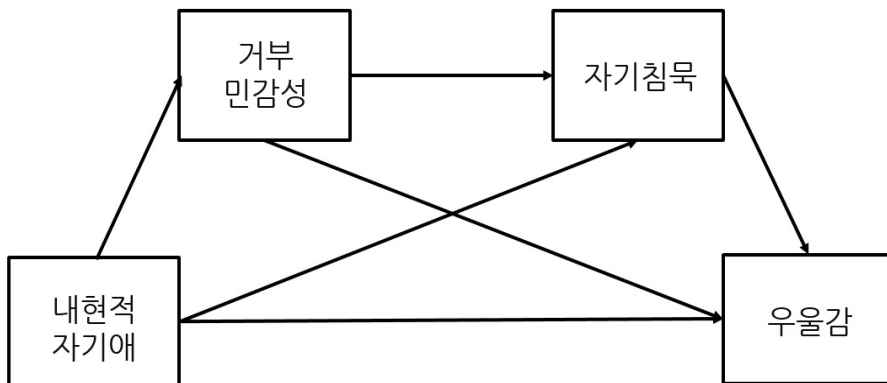


그림3. 가설 3-3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1. 내현적 자기애

1) 자기애의 개념

자기애(narcissism)라는 용어는 1898년 Havelock Ellis가 한 남성의 자기 성애(auto-eroticism) 사례를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스(Narcisse)에 빗대어 묘사하였는데, 이듬해 Nacke가 이를 언급하면서 ‘Narcissmus’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다(Akhtar & Thomson, 1982). 이후 Nacke의 논문을 보게 된 Freud가 자기애에 관해 관심을 두게 되면서(Raskin & Terry, 1988), 자기애는 Freud에게 있어 중요한 구성개념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임상 및 성격심리학 분야에서 필수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강선희, 정남운, 2002).

자기애에 관한 연구는 정신분석적 접근과 사회학습 이론적 접근을 두 축으로 한다. 그중 정신분석적 분야에서의 자기애는 Freud가 초기 심리성적 발달이론을 ‘자기애에 대하여(On narcissism)(1914)’라는 논문에서 소개하면서부터 개념화되었다(이준득, 2005). Freud는 원시적인 자기애의 형태를 자기성애적(auto-erotic)인 정상 과정의 일부로 보았다. 생의 초기에 유아는 혼자만의 자폐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 심리적인 욕동 에너지를 자기로 향해 자신의 신체를 성적대상으로 삼아 스스로 본능적인 만족감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의 유아는 자신을 스스로 대단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를 Freud는 일차 자기애

(primary narcissism)로 명명하였다(Freud, 1914). 이후 유아는 자신의 욕구에 반응하는 외부를 인식하게 되어 심리적 에너지를 대상에게 향하게 된다.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통해 이차 자기에(secondary narcissism)인 대상애(object love)를 발달시킨다. 즉, 다른 사람에게 심리적 에너지를 투여하여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그들한테서 오는 애정에 근거하여 자신의 가치감을 느끼는 성숙한 형태의 자기에를 발전시키게 된다(권석만, 한수정, 2000). 반면에 일차 자기에가 대상애로 발달하는 단계에서 고착 또는 퇴행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때 성인이 되어서도 유아적 자기에 상태로 고착되어 남아 있는 것을 Freud는 자기에성 장애로 보았다.

Kernberg(1975)와 Kohut(1977)은 자기에의 형성에 양육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유년기에 부모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에게 반응해주었느냐가 아이의 자기에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때 양육자를 통해 형성된 타인의 반응에 대한 기대와 경험이 자신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바탕이 된다(Bowlby, 1980; Bretherton, 1985, 1987). 또한, 아이는 초기 유년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호작용 방식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타인에 대한 상호작용 방식에 잠재적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Sroufe, 1997).

따라서 자기에 성향자들의 부적응적 양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기에가 형성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Bowlby(1973)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자기에는 영유아기에 자신을 양육한 사람과 형성된 애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주 양육자가 자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거부적이거나 비일관적인 태도로 양육하면 자녀와 불안정 애착이나 회피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안정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아이는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자기를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 나타내게 된다(Baldwin, 1994). 사람은 영유아기에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에 따라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통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해석하고 그에 따른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는 아동기,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나영, 조유진, 2009).

한편 Freud(1914)와 Kernberg(1975)는 자기애를 리비도(libido)가 정상적으로 발달하면서 이르게 되는 단계인 대상애에 도달하지 못한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 반면 Kohut(1977)은 자기애를 발달상의 병리적이탈이 아닌 정상적 발달 과정상 리비도의 한 형태로 봄으로써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성격 구조의 한 부분으로 보았다. 또 다른 정신분석적 이론에서는 자기애를 상처받은 자기 표상을 복원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나타나는 것이라고도 한다(권석만, 한수정, 2000). 이처럼 자기애는 병리적 측면만이 아니라 하나의 성격특질로서 일반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개인의 성격적 측면을 갖기도 한다(Emmons, 1987; Kohut, 1971).

자기애에 관한 연구의 또 다른 축인 Millon(1985)의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자기애의 원인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비현실적인 강화를 시키고 지나친 애정을 쏟는 양육태도를 제시하였다. 즉, 아이의 자기 가치감을 과도하게 높이는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내재한 자기애를 외부 현실에서 수용될 수 없을 정도로 고양하여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게 과장된 자기상은 좌절이 일어났을 때는 분노를 일으키고, 가끔 일어나는 성취에 의한 간헐적인 강화는 그러한 자기상의 왜곡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병리적인 자기애를 제시하였다.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APA, 2013)의 자기애성 성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진단기준을 살펴보면 Kernberg(1975)가 기술한 특성에 따라 공격적이고 외현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임상가들은 DSM-5에 제시된 자기애와 표면적으로는 다른 특성을 보이지만 유사한 역동 및 인지 정서적 특성을 보이는 자기애가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해 왔다. 따라서 현상적 관찰에 따라 자기애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Akhtar & Thompson, 1982; Cooper & Ronningstam, 1992; Kohut, 1977; Hedin & Cheek, 1997; Rathvon & Holmstrom, 1996; Wink, 1991b). 외현적 자기애는 DSM-5에 제시된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웅대하고 과장된 자기를 과시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우울함이나 열등감 등의 정서는 잘 드러내지 않는다. 또한, 착취적인 대인관계를 가지며, 감정이입 능력이 없고, 타인을 질투하거나, 타인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믿으며, 교만하고 무례한 행동을 보인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무의식적으로 웅대감을 억압하는 유형으로 자기 확신과 자기 주도성이 부족해 보이며 모호한 우울감을 나타낸다(박세란 외, 2005). 이들의 거대 자기 환상은 무의식적으로 숨겨져 있어 친밀한 관계에서만 과시적이고 잘난척하는 태도가 나타난다(강선희, 정남운, 2002).

Cooper(2000)는 두 자기애 유형이 공통된 역동을 지니면서도 서로 다른 현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두 자기애 유형이 손상된 자기 표상을 복구하기 위해 취하는 방어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자기고양을 통해 이득을 얻지만,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주된 동기는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자기고양을 통해 이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불편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점에서 더 역기능적이고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문제와 관련이 깊다(Wink,

1991b).

2) 내현적 자기에의 특징

내현적 자기에의 핵심 특징은 민감성과 취약성이다(강선희, 정남운, 2002; Wink, 1991b).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수줍음을 많이 타며, 민감하고 지나치게 감정을 숨기고 사람들 눈에 띄거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상황을 매우 불편해한다. 그러면서도 힘과 명예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타인이 혹시라도 자신을 싫어하거나 안 좋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에 늘 신경이 곤두서있게 된다. 이로 인해 작은 일에도 마음의 상처를 쉽게 입고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자주 느낀다. 따라서 열등감, 수치심 등에 의한 우울과 불안 등의 역기능적 정서와도 관련이 높다(Sakellaropoulo & Baldwin, 2007). 특히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부정정서를 억압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이 갈등 상황에서 분노와 같은 부정정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의 표현방식은 더욱 중요하다.

Dickinson과 Pincus(2003)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가 대인관계에서 불안함과 회피하는 경향을 특징으로 하는 회피적 성격장애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 더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는 것은 낮은 자존감 때문으로 보인다. 비판에 대한 민감성과 같은 취약성이 클수록 자기에적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실망과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되고, 결국 자신들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철수하고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Cooper, 1998; Gabbard, 1989, 1998; Gersten, 1991; Kraus & Reynolds, 2001; Wink, 1991a). 최근 자기에와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에가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

(김소연, 고영건, 2016)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이들은 만성적으로 강한 시기심으로 인해 자신이 시기하는 대상을 경멸하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방어하는 특성을 보인다(Akhtar & Thomson, 1982).

이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못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인지적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때때로 기억의 공백이나, 자존감이 위협되는 상황에서는 현실의 의미를 왜곡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타인을 자기와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나를 받아주고 좋아해 주는 존재’로 인식하는 등 ‘자기’에 몰두해 있는 특성을 보인다(권석만, 한수정, 2000). 겉으로는 자기애적인 특성인 잘난 체나 거만함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 자기애적인 역동과 기체가 자리 잡고 있다(김소연, 고영건, 2016). 따라서 이들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자만심이 다치지 않게 보호하려는 방어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권석만, 한수정, 2000).

그동안 자기애와 관련되는 변인으로 우울, 불안, 수치심, 부적응적 대처, 분노수준, 분노표현, 대인관계, 자존감, 자의식, 공격성, 비합리적 신념, 공감능력, 중독, 자기용서, 자기개념 명확성, 사회적 지지, 귀인양식 등이 연구되어 왔다(구현경, 김종남, 2014; 강문선, 이영순, 2011; 강예모, 김정규, 2012; 김정균, 장석진, 2014; 류경희, 홍혜영, 2014; 손은경, 권혜수, 2014; 최민경, 김종남, 2010; 홍명숙, 어주경, 2013).

2. 우울감

1) 우울감의 개념

DSM-5에 따르면, 주요 우울장애는 한 번 이상의 우울증 삽화를 필수로

하는데 이 삽화의 기준은 최근 2주간 우울한 기분, 대부분 활동에서 흥미 또는 즐거움의 상실, 식욕 및 체중 변화, 수면의 변화,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 피로감, 무가치감 또는 죄책감, 사고력 및 집중력의 감소, 자살사고 또는 시도 등에서 5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우울한 기분과 흥미 또는 즐거움 상실이 필수로 포함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우울감은 가벼운 슬픈 감정 상태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임상적 장애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울함은 기본적으로 실패와 상실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기 때문에 일상의 실패와 상실로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우울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울한 상태의 심각도가 높아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고 이러한 기분을 지속한다면 병적인 우울로 구분한다.

우울감의 원인을 설명하는 접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정신 역동적 접근에서는 우울감을 무의식적 동기와 갈등의 문제로 설명한다. 프로이트는 초기 아동기에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의 중요한 일부를 잃어버렸다는 슬픔뿐만 아니라 자신을 떠난 대상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되며, 이러한 분노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자아 기능이 약해지면서 우울증이 촉발된다고 보았다(권석만, 2003). 또한, 행동주의적 접근에서는 개인이 상실이나 생활의 주요한 변화 후에 환경에서 긍정적 강화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처벌이나 부정적 사건을 더 많이 경험했을 때 우울감이 발생한다고 보았다(Gerrig & Zimbardo, 2008; Lewinsohn, 1984).

한편, 인지적 접근에서는 강력한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우울감을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우울한 사람들은 중립적인 상황에도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Beck, 1963). 인지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서조절전략 중에서 반추, 사고억제, 과극화, 자기 비난 등이

기분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Garnefski, Teerds, Kraaij, Legerstee, & Kommer, 2004), 특히 우울감과 반추 전략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추는 개인의 우울한 증상과 이러한 증상이 암시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의 주의를 집중하는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정의된다(Nolen-Hoeksema, 2000). 특히, 우울한 사람들에게 있어 반추는 비판적이고 자기 비판적이며 자기 비난적인 생각들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반추가 우울한 사람들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을 저해한다(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5; Lyubomirsky, Tucker, Caldwell, & Berg, 1999).

우울감은 대학생의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도 가장 유병률이 높은 심리적 문제로 알려져 있다(노명선, 정홍진, 이해우, 이효정, 한성구, 함봉진, 2006; 조맹제 등 2006). 대학생 우울감에 관하여 연구되어온 요인들은 크게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개인 요인은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 먼저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여 타인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의존적 성격이 있다. 또한, 자신의 엄격한 기준에서 기인하는 불만과 죄책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자기 비판적 성격이 우울감에 취약하다. 이는 Beck, Epstein, Harrison 그리고 Emery(1983)가 주장한 우울 취약형 성격인 대인 지향성 그리고 자율지향성과 개념을 같이 한다. 초기 성인기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우울 취약형 성격유형의 사람들이 높은 우울감 수준을 나타냈음을 보고하여 성격 유형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내적 요인임을 밝혀왔다(김정미, 조현재 2009; 김현진, 한종철 2004; Campos, Besser, Abreu, Parreira, & Blatt, 2014). Coloiner 등(1993)은 그의 심리·생물학적 모델에서 우울을 예측하는 성격요인을 검증하였는데, 자기 주도성이 낮은 성격이 높은 우울감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회

피적 성격과 완벽주의적 성격이 대학생의 우울감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중요한 성격적 요인임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김수연 2005; 박송이, 채규만, 2012; Hamamura & Laird, 2014; Noble, Ashby, & Gnilka, 2014).

개인의 성격적 특성뿐 아니라 사회 및 학교와 같은 환경 요인도 대학생의 우울감을 예측하는 요인이다. 대학생 시기는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친밀한 이성 관계를 비롯한 대인관계 양상이 발전하게 되는 때이다. 이러한 시기에 원만한 관계를 발달시키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우울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박장희, 정옥분, 2002; 권석만, 2003). 또한, 친구 및 교수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때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과 우울감의 위험성이 높아지며(박재연, 김정기 2014), 대인관계 내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낮다고 지각한 사람들은 높은 우울감을 나타냈다(강석화, 나동석, 2013; 박광희, 2008). 이외에도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치열한 학점 경쟁, 취업난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역시 대학생에게 진로에 대한 불안과 무력감을 느끼게 하여 우울감이 증가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김은주, 최경원, 2012; 이화인, 2008; 홍예진, 박주희, 2015).

2) 내현적 자기에와 우울감의 관계

자기애 성향자들이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임상 증상은 우울이다(권석만, 한수정, 2000). 그동안 자기애는 우울감 증상의 발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밝혀져 왔다(Aalsm, Lapaley, & Flannery, 2006; Anastasopoulos, Dimitris, 2007). 특히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한 (depression) 혹은 소진된(depleted) 자기애로 지칭되는 만큼(Rathvon

& Holmstrom, 1996),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감의 정적 상관관계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권희영, 홍혜영, 2010; 하은혜, 곽진영, 2010; 이진숙 외, 2012; Lapsley & Aalsma, 2006; Wink, 1991a).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내면에 있는 이상(ideal)의 자기상과 현실의 자기 불일치로 인한 괴리감 때문에 우울해질 수 있다. Miller(1979)는 “우울은 자기 상실(the loss of the self)의 고통에 대한 방어”라고 말하며, 자기애 성향자는 타인의 찬사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적인 내적 감정보다는, 성과나 외부 요인에 의존하는 취약한 자존감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결코 자신에게 만족할 수 없으며, 이러한 욕구가 좌절되었을 경우 우울해진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Higgins(1987)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가지고 있는 웅대한 자기와 실제 자기의 불일치는 우울 정서를, 당위적 자기와 실제 자기의 불일치는 불안 정서를 유도한다고 하였다. 이후 정립된 ‘위협된 자아이론’ (Baumeister, Smart, & Boden, 1996)에 따르면 팽창되고 근거 없는 호의적 자기 관점을 가진 개인은 타인의 부정적 평가가 내적자기 평가와 일치하지 않을 때, 부정적 평가가 자기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자기애적 성격의 특징 중 하나인 특권의식은 전지전능한 심리와 연관이 깊은데 모두에게 인정받고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어 하지만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수행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자신이 특별하지 않고 결핍되어 있으며 무능하다는 잠재적인 느낌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억압되어 있던 수치심이 촉발하여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David, 1994에서 재인용).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를 살펴본 최근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과민/취약성이 우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임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 중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며,

쉽게 좌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열등하다고 지각하는 부정적 자기평가가 대학생의 우울감을 가장 잘 예측한다고 보았다(김혜리, 김정민, 서영임, 2016). 이러한 견해는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지지 되었는데, 자기애와 우울감의 연관성은 대학생 집단뿐 아니라, 알코올 의존집단, 정신병원 내 환자 집단에서도 나타났다(Watson, Sawrie, Greene, & Arredondo, 2002). 반면, 기혼여성의 자기애와 우울감에 대한 권영란(2002)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여성들이 낮은 여성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우울감을 보였으며, 이에 대해 비교적 건강한 지역사회 모델에서는 자기애가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성격 특성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내 박세란 등(2005)의 연구에서도 외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보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의 우울감이 더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애 보다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 때,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취약하며,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3. 거부민감성

1) 거부민감성의 개념

타인에게 거절당하지 않고 수용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주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이다(Baumeister & Leary, 1995).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수용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거부당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거부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러한 개인마다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거부민감성이다(Levy, Ayduk, & Downey, 2001).

거부민감성은 Feldman과 Downey(1994)에 의해 제창된 개념으로,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하고, 항상 거부를 지각하며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인지-정서적 과정이다(Feldman & Downey, 1994). 즉, 거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부의 위협을 우선하여 탐지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방어적 동기 유발 체계이다.

거부민감성은 ‘의미 있는 타인’ 으로부터 정서적인 거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다(이복동, 2000). 유아기의 아동이 주 양육자에게서부터 비일관적이고 무반응적인 양육이나 반복적인 거부를 경험하면 성장한 이후에도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된다(Feldman & Downey, 1994). 이러한 거부적 양육을 경험한 자녀는 거부민감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거부에 대한 방어적인 기대를 형성한다(Levy, Ayduk, & Downey, 2001). 결국, 이들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타인의 의도를 자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과잉행동 반응을 나타내고, 그 결과 공격 행동과 같은 부적응적 문제를 나타내게 된다(Ayduk, Downey, & Kim, 2001; Feldman, Downey, 1994).

즉, 거부민감성은 자기방어적 행동으로부터 발생하지만, 타인과의 신뢰감에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적 행동들을 나타낸다. 거부 신호라고 지각한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타인의 모호한 행동만 보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실제로 타인으로부터 거부를 일으키는 자기충족적 예언을 실현하게 할 수 있다(Downey, Freitas, Michaelis, & Khouri, 1998). 이는 거부를 끌어내고, 결국 거부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는 일이 되풀이되어 상황을 악화시킨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의 상대방이 자신을 수용할지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은 거부를 지각한 이후에 적개심, 의기소침, 정서적 철회, 질투 등을

통하여 관계를 파괴하고,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감소시키게 된다 (Romero-Canyas, Downey, Berenson, Ayduk, & Kang, 2010).

Romero-Canyas 등(2010)은 거부민감성을 첫째, 거부가 일어날 가능성을 과도하게 인식하고 거부지표(indicator)를 과도하게 경계하는 태도, 둘째, 환경 안에서 거부 신호와 다른 사회적 신호(긍정/부정)를 차별적으로 탐지해내는 능력, 셋째, 거부 비슷한 것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즉 위협을 탐지했을 때 재빨리 방어기제를 동원하여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민감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이런 민감한 거부에 대한 반응은 과도한 경계와 잘못된 거부 신호 지각 및 해석 등을 야기하여 정서적 행동적 과잉 반응 및 대인관계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Mor와 Inbar(2009)는 거부민감성 도식과 관련된 정보처리 편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거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거부와 관련된 정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것을 자기와 관련지어 해석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그들은 위협과 관련된 신호를 느끼면 자동반사적으로 강렬하게 반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거부를 지각했을 때 성찰과 합리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복잡한 인지처리 과정의 매개나 이득을 누리지 못한 채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때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또 다른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2) 내현적 자기에와 거부민감성의 관계

최근 자기에와 거부민감성의 연구에서 자기에가 강할수록 높은 사회적 거부민감성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이경주, 황순택, 정다원, 2015). 이는 자기에 성향과 거부민감성 간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결과(Barry, Chaplin, & Grageman, 2006; Bushman & Baumeister, 1998)와도 일치한다.

Bowlby(1973, 1980)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 모두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으로 인해 형성된 심리적 표상으로 모두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상을 형성하고 있다. 아동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방임과 반복적 거절은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킨다(홍진이, 한기백, 2015; 유고은, 방희정, 2011; Erozkhan, 2009). 또한, 부모의 거부적이고 과보호적인 양육 태도는 내현적 자기애를 발달시킨다(홍영미, 성현란, 2012; 정수인, 오인수, 2014).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부모로부터 받은 비일관적인 양육 경험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거부에 대한 불안이 높다(Hendin & Check, 1997). 즉,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가 거부민감성과 내현적 자기애를 발달시키는 공통 선행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박우람, 홍상황, 2014). 즉, 부모의 양육 태도가 가혹하고 부적절하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유약한 내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부민감성과 내현적 자기애를 발달시킨다고 보았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은 모두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인 내적작동모델에서 기인한 심리적 요인들(박우람, 홍상황, 2015)에 기인하며,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거부 신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밝혔다(김정남, 2015; 이경주, 황순택, 2013).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관련성을 보이는데, 거부민감성이 높으면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홍상황, 이은주, 2014). 또

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타인의 반응이나 비판에 매우 취약하고 민감하여(강선희, 정남운, 2002), 대인관계에서 타인에게 수용되기를 바라지만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거부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예민한 특성을 보인다(이준득 외, 2007; Downey & Feldman, 1996; Hendin & Cheek, 1997).

한편, 자기에와 관련된 유사변인으로 대학생의 자존감과 거부민감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자존감이 낮을수록 거부민감성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이인재, 양난미, 2015). 자신에 대해 형성된 부정적인 자기개념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거부를 예상하게 됨에 따라 거부불안이나 분노,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킨다. 또한, 자기 존중감과 유사한 자기개념 중 하나인 자기가치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자기가치감이 낮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Ayduk, Gyurak, Luerssen, 2009),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해 형성된 부적절한 자기개념은 결국 타인과 관계에서의 심리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거부민감성과 우울의 관계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한다는 것을 몇몇 연구에서 밝힌 바 있는데(류혜라, 박기환, 2014; 박민숙, 2014), 이들은 타인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 정서의 표현과 통제에 어려움을 느끼며, 회피, 부인, 억압 등의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Blatt(1974)은 ‘의존적 우울증’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는데 유기불안, 친밀감에 대한 불편감, 타인을 믿을 수 없다는 확신 등이 우울증 발생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인지적 취약성을 가진 개인들

은 대인관계에서 거부를 경험할 때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았다. Gotlib과 Hammen(1992)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는데, 이들이 대인관계에서 불화를 겪을 때 우울증이 발병하게 된다고 보았다. 즉, 대인관계에 대해 부정적 표상이 있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소홀하게 대하거나 거리를 두면 자신을 피한다고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타인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며, 점차 타인에게 접근하지 않게 되어 사회적 철수가 일어나 우울감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Marston, Hare와 Allen(2010)은 15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과 내재화 증상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16세 때부터 시작하여 3년 기간의 종단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16세 때 처음으로 측정한 거부민감성 수준이 이후 3년간의 우울감 수준과 유의하게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우울감을 더 크게 경험하며, 이러한 결과는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Ayduk, Downey와 Kim(2001)은 여자대학생 223명을 대상으로 1년 기간의 종단 연구를 통하여 거부민감성과 이별, 그리고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전검사에서 측정한 개인의 거부민감성 수준이 1년 뒤 사후검사에서 우울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성 친구와 이별을 경험하였을 때 더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나타냈다(Brown & Harris, 1978).

이후, Mellin(2008)은 Ayduk, Downey와 Kim(2001)의 기존 연구가 여성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는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중서부 대학의 대학생 남녀 314명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과 우울감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관계없이 거부민감성은 우울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임이 밝혀졌다. 이는 개인의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에 더 취약하다는 의미이다.

한편, Orsillo와 연구자들은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당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이 성 학대와는 독립적으로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Orsillo, Batten, Plumb, Luterek, & Roessner, 2004). 또한, 거부민감성은 우울 증상의 발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Downey와 Lebolt, Rincon 및 Freitas(1998)의 연구에서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대인과의 상호작용을 어려워하며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불만족은 이차적인 우울 증상 발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4. 자기침묵

1) 자기침묵의 개념

자기침묵(self-silencing)은 대인관계 속에서 원활하게 상호작용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제한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애착 이론과 관계 속 자기(self-in-relation) 이론에 근거한다. Jack(1991)은 우울증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종단연구를 토대로 우울증의 유병률에서의 성차를 설명하기 위해 자기침묵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Jack과 Dill(1992)에 따르면 많은 여성은 의미 있는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경험에 근거하여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친밀한 관계를 정립하거나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때때로 ‘자기침묵’이라 지칭되는 극단적이고 병적인 인지 도식이 야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들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희생과 자기 부인의 중요성을 학습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기침묵적 인지 도식도 함께 획득하게 된다. 여성들은 성 유형화된 학습 방식으로 인해 관계 속에서 갈등을 피하고자 실제 정서는 감시, 억제하는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 또한, 여성들은 친밀감의 부재를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로 여기는데(Kaplan, 1986), 이러한 귀인의 오류는 여성들에게 자기 생각과 감정을 더욱 억제하며 침묵하게 만든다. 즉, 갈등을 피하고자 자신의 정서나 행동을 검열하게 되고 이는 자기침묵이라는 병적인 인지 도식을 일으키는 것이다. 최근 Watson과 Grotewiel(2016)은 성차별 경험과 전통적인 성 역할을 장려하는 사회일수록 자기침묵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며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자기침묵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일부 연구자들은 자기침묵을 인지 도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대인관계에 취약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원할 때 사용하는 대처 기제로 개념화하면서(Besser, Flett, & Davis, 2003), 자기침묵의 행동적 측면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자기침묵(silencing the self)대신 자기침묵 행동(self-silencing behavio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Page, Stevens, & Galvin, 1996). 이에 따라 자기침묵은 대인관계에서의 행동 양식이라는 개념화에 근거하여 의사소통 양식(Uebelacker, Courtnage, & Whisman, 2003) 및 갈등에 대한 대처 기제(Page, Stevens, & Galvin, 1996; Ussher, 2004; Whiffen, Foot, & Thompson, 2007) 등으로 연구에 활용되었다.

자기침묵 성향이 높은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타인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강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고 자기표현을 억제하는 특징

을 가진다(Thompson, Whiffen, & Aube, 2001).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자기침묵을 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관계에서 자기의 상실의 일어나지만, 개인은 자기침묵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타인과의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친밀감이 아니므로 외로움과 무기력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Joiner, Coyne, & Blalock, 1999; Page, Stevens, & Galvin, 1996).

또한, 자기침묵 행동은 대인관계 마찰과 같은 상황에 있어 수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자기침묵은 결과적으로 상대방과 자신 모두에게 이로울 게 없는 부정적인 기제이다(Rusbult, Bissonette, Arriaga, & Cox, 1998). 즉, 한쪽은 상처를 받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주기만 하는 부정적인 관계가 고착되는 것이다.

2) 내현적 자기에와 자기침묵의 관계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분노경험을 많이 하지만 이를 표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조영재, 이동훈, 2013),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취약하여 부적응적 방어유형인 회피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백승혜, 현명호, 2008; 신동주, 정남운, 2006; 이진숙 외, 2012; 조은영, 곽은희, 2012).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가능한 비판과 비난을 처음부터 막기 위하여 타인의 말과 행동에 자신에 대한 비난의 단서가 있지 않은지 주의 깊게 경청하고 확인(affirmation)을 피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한다(박세란 외, 2005).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타인의 행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대인관계에서 과민함, 불안정성, 강한 복수심을 느끼고(Wink, 1991b),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깊이 있는 대

인관계를 회피하고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행동한다(정남운, 2001). Schurman(2000)의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에와 대인불안 간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

Kohut(1971, 1977)은 자기에적인 사람들은 자기 가치감을 조절하는 기능을 내면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평가와 인정을 끊임없이 갈망하게 된다고 하였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자기고양(self-enhancement) 전략이 덜 발달하여있어서 타인에게서 오는 외적 반응에 의존하곤 한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남들이 선호하는 방식에 순응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매달리게 된다. 이를 위해 타인의 요구를 맞추려 하며 끊임없이 완벽해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사람들은 그들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높은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취약성이 크면 클수록 자기에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실망과 고통은 커지게 되며, 그들의 만성적인 과민성은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태도로 더욱 사회적으로 철수하고 회피하도록 만든다고 한다(Cooper, 1998; Gabbard, 1989, 1998; Gersten, 1991; Kraus & Reynolds, 2001; Wink, 1991a).

한 개인이 현재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낀다면, 그것을 줄이기 위해 자기 개념을 수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때 의사소통 방식이 개인의 괴리감,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자기 불일치가 대인관계 속에서 의사소통 방식에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김영수, 신희천, 2012). 의사소통 불안은 의사소통 상황을 회피하거나 자발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제한하는 자기침묵의 경우와 비슷

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자기애와 유사한 성향인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얻고 비난을 피하는데 초점(Hewitt & Flett, 1991, 2004)을 두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에 대해 매우 수동적이고 간접적으로 반응하게 된다(Flett, Besser, Hewitt, & Davis, 2007).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보이는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을 감추거나 겉으로는 긍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 연구도 있다(Flett, Besser, Hewitt, & Davis, 2007).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피하고자 분노를 억제하고 자기침묵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임상적으로도 내현적 자기애의 특징 대부분은 대인불안 혹은 사회불안성향의 사람들과 유사하다.

3) 자기침묵과 우울감의 관계

대인관계 내에서의 자기침묵과 우울감과의 상관관계는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Cramer & Thoms, 2003; Duarte & Thompson, 1999; Gratch, Bassett, & Attra, 1995; Peleg-Sagy & Shahar, 2015; Thompson, 1995). Thompson(1995)에 따르면 어린 시절 거부적인 양육 태도의 부모나 성인기에 비판적이고 비난을 일삼는 애인과의 관계 경험은 자기침묵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우울감에 대한 취약성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hiffen 등(2007)의 연구에서도 결혼 생활에 있어 다툼이나 불화가 많다고 느끼는 부부들은 높은 자기침묵을 나타냈다는 결과가 있다. 이들은 자신의 분노를 숨긴 채 배우자의 바람이나 뜻에 따르는 일이 많았고,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서 자기침묵의 하위요인 중 ‘외적인 자기지각’ 과 ‘분열된 자기’ 가 부부 불화와 우울감 증상 간의

유의한 매개 변인이었다.

Whiffen 등(2007)의 연구에서는 많은 여성이 'secret sadness'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부적응적인 관계 패턴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secret sadness'에 대한 언급은 Blatt과 Zuroff(1992)의 연구에서도 확인되며, 의존성이 높은 이들이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깊이 의존하므로 타인이 제공하는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 분노를 표현하는 것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꺼리는 것은 자기침묵을 보이는 여성들의 중심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하였다(Jack, 2001).

Gratch, Bassett과 Attra(1995)는 자기침묵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종의 대학생(라틴계 미국인, 유럽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자기침묵은 각 인종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시아계 미국인의 자기침묵 수준이 다른 인종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에 이들의 우울감 수준은 아프리카계, 라틴계, 미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유럽계, 미국인 집단만 타 인종집단과 비교하면 낮은 우울 점수가 나타났다. 즉, 아시아계 미국인의 자기침묵 수준이 다른 인종 집단보다 높았음에도, 우울감 수준은 타 인종 집단과 같았다. 이는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자기침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서구 문화권보다 작고, 자기침묵의 의미가 서구 문화권과는 다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유럽계 미국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Carr, Gilroy와 Sherman(1996)의 연구에서는 자기침묵이 유럽계 미국인 집단의 우울감은 유의하게 예측하였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우울감은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침묵이 우울감을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더라도 연구대상이 속한 문화에 따라서 자기침묵의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4)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의 관계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거부를 경험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은 거부를 인지했을 때 느낀 감정이 불안인지 혹은 분노인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내부 작동모델이라는 인지-정서적 접근에서 보면(Downey & Feldman, 1996; Feldman & Downey, 1994),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경우 자기침묵, 사회적 회피, 애정의 철회와 같은 ‘수동적인 적대감’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분노를 느끼는 경우 신체적, 언어적, 비언어적 공격적 행동으로 드러나며 이러한 행동을 통해 거부민감성에 대처한다(Ayduk, Downey, Testa, Yem, & Shoda, 1999; Downey & Feldman, 1996; Downey, Feldman, & Ayduk, 2000).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호작용은 위협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갈등상황을 문제 해결의 기회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거부할 기회로 바라본다(Downey & Feldman, 1996). 자기침묵을 관계의 안정성에 위협이 느껴질 때 일어나는 낮은 수준의 자기노출(Page, Stevens, & Galvins, 1996)이라고 정의했던 것과 같이, 자기침묵은 관계에서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 타인과의 충돌을 피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일 수 있지만, 관계의 질 측면에서 건설적인 방법은 아니다(정신아, 2013).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학생들은 주로 회피 중심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공수자, 이은희, 2006; 박재숙, 2011; 김윤정, 2014; 최태은, 이유리, 2015).

Harper 등(2006)은 거부민감성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성 친구를 사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한 결과, 거부민감성은 자기침묵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연구자들은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친밀감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침묵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Remen, Chambless, & Rodebaugh, 2002).

한편, 거부민감성이 높은 여성일수록 이성 관계에서 갈등 발생 시,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지라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Purdie와 Downey, 2000). 또한, Luterek, Harb, Heimberg와 Marx(2004)는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받았던 사람 중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내용에 순응하고 분노를 억제하는 것은 자기침묵과 같은 개념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억압하고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기침묵과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소속 기관인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방법, 위험요소, 피험자 정보 보호 등에 관하여 사전 심의와 승인(SSWUIRB 2017-021)을 거쳐 서울과 경기, 전북지역에 있는 8개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만 18세~28세의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대상 중 남학생은 184명(46%), 여학생은 216명(54%)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0.59세(SD=2.12)였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00)

| 구 분 | | 인원(명) | 비율(%) |
|------|-------|-------|-------|
| 성별 | 남자 | 184 | 46.0 |
| | 여자 | 216 | 54.0 |
| 학년 | 1학년 | 190 | 47.5 |
| | 2학년 | 79 | 19.8 |
| | 3학년 | 81 | 20.3 |
| | 4학년 | 50 | 12.5 |
| 전공계열 | 인 문 | 47 | 11.8 |
| | 사회과학 | 93 | 23.3 |
| | 자연·공학 | 90 | 22.5 |
| | 경영대학 | 41 | 10.3 |
| | 예체능 | 67 | 16.8 |
| | 사범 | 13 | 3.3 |
| | 의 학 | 4 | 1.0 |
| | 법 학 | 10 | 2.5 |
| | 생활과학 | 35 | 8.7 |

2. 측정도구

1) 내현적 자기에 척도

내현적 자기에(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기초하여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현적 자기에 척도는 전체 45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 범위는 45점에서 22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선희(2002)는 내현적 자기에의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하위요인을 도출해, 이를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의 공통적 요인과 내현적 자기에만의 고유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공통적 요인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함께 항상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로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착취적인 대인관계 성향과 특권의식, 자기중심성을 반영한 ‘착취/자기중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유한 요인은 목표 설정의 어려움과 불확실성 그리고 직업적이고 사회적인 정체성에 불확실성 및 불만족 성향을 의미하는 ‘목표불안정’, 자신을 불행하며 무가치하게 느끼고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과민/취약성’, 마지막으로 소심하고 내향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한 ‘소심/자신감 부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5개의 하위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내현적 자기에를 측정하였다. 선행연구(강선희, 정남운, 2002)에서 보고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0이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합치도는 .94이다.

표 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Cronbach'α)

| 하위요인 | 문항분류 | 문항 수 | 신뢰도 계수 |
|-------------|--------------------------------------|------|--------|
| 목표불안정 | 5, 15, 20*, 23, 29, 30, 37*, 42, 44 | 9 | .89 |
|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 2, 6, 7, 13, 17, 24, 33, 38, 43 | 9 | .82 |
| 착취/자기중심성 | 4, 9, 11, 12, 16, 22, 27, 35, 45 | 9 | .82 |
| 과민/취약성 | 3, 8, 10, 14, 19, 25, 26, 31, 36, 40 | 10 | .87 |
| 소심/자신감부족 | 1, 18, 21, 28, 32, 34*, 39, 41 | 8 | .81 |
| 전체 | | 45 | .94 |

*역채점 문항

2) 우울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생이 연구대상이므로 일반인의 우울감 수준을 측정하는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CES-D는 미국정신보건연구원 (Radloff, 1977)에서 개발된 척도로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통합적 한국판 CES-D로 변안하였다.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4점 척도(1=극히 드물게 4=거의 대부분)로서 1주일 동안의 빈도를 선택하게 되어있다. 20점에서 80점까지 총점이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하다고 해석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가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3) 거부민감성 척도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거부민감성 질문지(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를 이복

동(2000)이 번안 및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부모, 친구, 교수, 연인 등의 중요한 타인에게 요구해야 하는 18개의 상황을 제시한다. 18개의 상황 각각에서 (1) 거부걱정 즉, 자신의 요구가 거부당할 것에 대해 불안한 정도 (2) 수용 기대 즉,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하는 정도를 답하도록 문항이 짝지어져 있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18개 상황 각각에서 거부 걱정과 수용 기대를 나타내는 총 36개 문항을 6점 Likert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거부민감성 점수는 각 상황에서 수용 기대점수를 역 채점한 것에 거부 걱정 점수를 곱한 18개의 점수를 합한 후, 18로 나누어 평균값을 낸 것을 사용하며, 응답자들은 1점에서 36점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Downey와 Feldman(1996)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3, 한국 대학생을 표본으로 한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87로 나타났다.

표 3. 거부민감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Cronbach' α)

| 하위요인 | 문항분류 | 문항 수 | 신뢰도 계수 |
|--------------|--|------|--------|
| 반응에 대한 불안/염려 | 1a,2a,3a,4a,5a,6a,7a,8a,9a,10a, 11a,12a,13a,14a,15a,16a,17a,18a | 18 | .88 |
| 허용에 대한 기대 | 1b,2b,3b,4b,5b,6b,7b,8b,9b,10b, 11b,12b,13b,14b,15b,16b,17b,18b | 18 | .88 |
| 전체(역산 곱) | | 36 | .87 |

4) 자기침묵 척도

자기침묵을 측정하기 위하여 Jack과 Dill이 1992년에 개발한 자기침묵 척도(Silencing-The-Self Scale: STSS)를 양지윤(200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STSS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행동과 자신에 대한 신념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자기침묵

(silencing-the-self)적 인지 도식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31문항의 자기 보고식 척도로,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적인 자가지각’은 외적인 기준에 의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정도를,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은 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애착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정도를, ‘자기침묵’은 갈등이나 관계의 손상을 피하려고 자기표현과 행동을 억제하는 정도를, 마지막으로 ‘분열된 자기’는 내적인 분노나 적대성을 억누르고 여성적 역할에 순응하는 외적 자기를 드러내는 정도를 나타낸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으며, 척도의 전체 합산점수 범위는 최저 31점에서부터 최고 15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기침묵을 나타내는 동시에 관계에서의 낮은 자기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Jack과 Dill(199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표본에 따라 .86~.94로 나타났으며, 검사 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88~.9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원척도 개발자인 Jack과 Dill(1992)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척도 1번, 11번 문항이 문항 총 상관의 0이거나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척도사용 시 두 문항의 총 상관을 확인하고 제외할 것을 권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1번과 11번 문항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4. 자기침묵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Cronbach' α)

| 하위요인 | 문항분류 | 문항 수 | 신뢰도 계수 |
|-------------|------------------------------------|------|--------|
| 외적인 자가지각 | 6, 7, 23, 27, 28, 31 | 6 | .80 |
|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 | 3, 4, 9, 10, 12, 22, 29 | 7 | .69 |
| 자기침묵 | 2, 8*, 14, 15*, 18, 20, 24, 26, 30 | 9 | .74 |
| 분열된 자기 | 5, 13, 16, 17, 19, 21*, 25 | 7 | .78 |
| 전체 | | 29 | .87 |

*역채점 문항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변인의 분포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를 위해 척도별로 내적 합치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내현적 자기에, 거부민감성, 자기침묵, 우울감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셋째, 내현적자기애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경험회피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2)가 제안한 순차적 중다매개효과(Multiple Mediation with Mediators operation in Serial) 검증을 시행하였다. 순차적 매개효과 모형이란 매개변인이 연속적으로 연결된 형태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매개변인인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이 연결된 모형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2)가 개발한 SPSS 매크로 프로그램인 PROCESS에서 경로모형 검증과 함께 구현되는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 모형에서 나타내는 모든 간접효과(내현적 자기애 → 거부민감성 → 우울감, 내현적 자기애 → 자기침묵 → 우울감, 내현적 자기애 → 거부민감성 → 자기침묵 → 우울감)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인의 왜도가 절대값 2, 첨도가 절대값 7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측정 변인이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 Finch, & Curran, 1995).

표 5.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N=400)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왜도 | 첨도 |
|----------------|--------|-------|-----|-----|------|------|
| 내현적 자기에 | 108.60 | 26.25 | 52 | 198 | .39 | -.22 |
| 목표불안정 | 21.73 | 7.52 | 9 | 44 | .45 | -.17 |
| 인정욕구_거대자기환상 | 25.64 | 6.56 | 9 | 44 | .16 | -.09 |
| 착취_자기중심성 | 17.81 | 6.10 | 9 | 43 | .89 | .76 |
| 과민_취약성 | 22.96 | 7.94 | 10 | 49 | .57 | -.08 |
| 소심_자신감부족 | 20.46 | 5.99 | 8 | 38 | .38 | -.09 |
| 우울감 | 34.29 | 10.56 | 20 | 72 | .99 | .72 |
| 거부민감성 | 8.04 | 3.76 | 1 | 23 | .68 | .71 |
| 반응에 대한 불안_염려 | 45.47 | 14.94 | 18 | 100 | .38 | -.02 |
| 허용에 대한 기대 | 75.40 | 13.00 | 28 | 108 | -.20 | .56 |
| 자기침묵 | 77.87 | 16.12 | 39 | 122 | .14 | -.51 |
| 외적인 자기지각 | 16.36 | 4.82 | 6 | 29 | .12 | -.73 |
|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 | 18.69 | 4.60 | 7 | 32 | .03 | -.38 |
| 자기침묵 | 25.69 | 5.87 | 11 | 43 | .12 | -.18 |
| 분열된 자기 | 16.42 | 5.13 | 7 | 31 | .31 | -.46 |

2. 주요변인 간 상관분석

내현적 자기애, 거부민감성, 자기침묵, 우울감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6>에 제시하였다.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는 우울감($r=.63, p<.01$), 자기침묵($r=.60, p<.01$), 거부민감성($r=.53, p<.01$) 순으로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거부민감성은 자기침묵($r=.46, p<.01$), 우울감($r=.41, p<.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자기침묵과 우울감의 관계($r=.42, p<.01$) 또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기침묵 척도의 하위요인인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은 상대적으로 주요변인들과 낮은 정도의 상관을 나타냈다(내현적 자기애: $r=.19, p<.01$, 거부민감성: $r=.16, p<.01$, 우울: $r=.17, p<.01$). 자기침묵 척도 내에서도 총 척도 점수와의 상관이 다른 하위요인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67, p<.01$).

표 6.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N=400)

| 구분 | 내현적 자기애 | 거부민감성 | 자기침묵 | 우울감 |
|---------|---------|-------|-------|-----|
| 내현적 자기애 | 1 | | | |
| 거부민감성 | .53** | 1 | | |
| 자기침묵 | .60** | .46** | 1 | |
| 우울감 | .63** | .41** | .42** | 1 |

** $p<.01$

3.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Hayes(2012)가 제안한 절차대로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울감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398)=255.98, p<.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39.1%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울감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고($\beta=.25, t=16.00, p<.001$),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아질수록 우울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거부민감성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398)=155.16, p<.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52.96%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거부민감성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eta=.08, t=12.46, p<.001$).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거부에 대한 민감성을 더 많이 경험함을 의미한다.

자기침묵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의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2,397)=127.12, p<.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39.04%로 나타났다. 자기침묵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beta=.30, t=10.74, p<.001$)와 거부민감성($\beta=.85, t=4.31, p<.001$)의 영향이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자기침묵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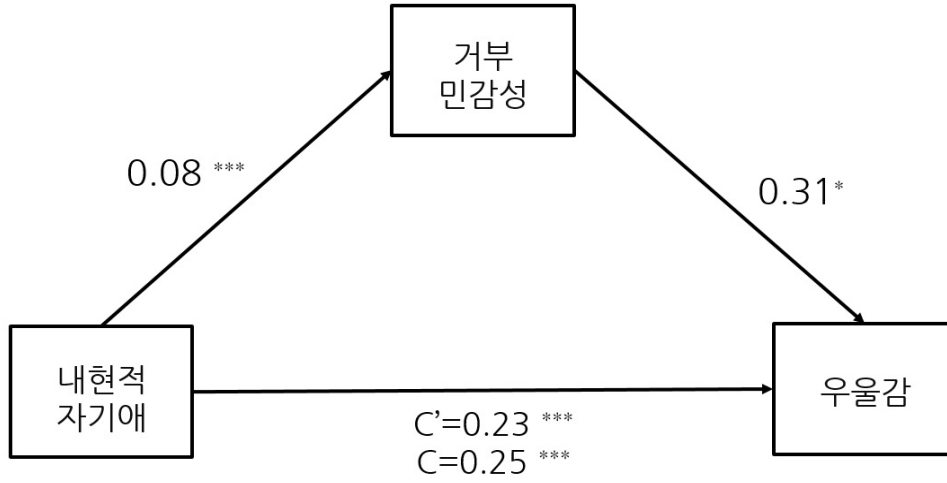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우울감에 대한 거부민감성, 자기침묵, 내현적 자기애의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3,396)=88.68, p<.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40.18%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울감에 대한 거부민감

성($\beta = .29$, $t=2.17$, $p<.05$), 내현적 자기애($\beta = .22$, $t=10.42$, $p<.001$)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우울감에 대한 자기침묵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을 투입하였을 때도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기 때문에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부분매개 모형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7. 연구모형 매개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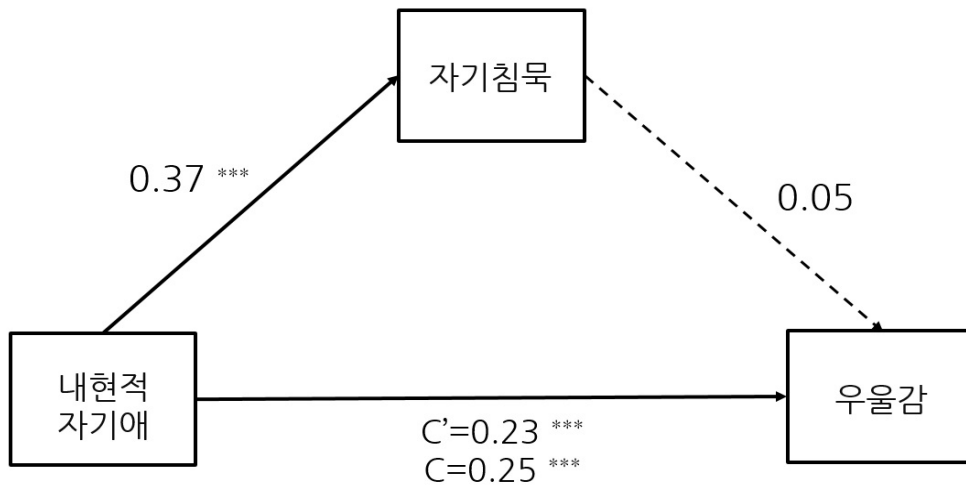
| 준거변인 | 예측변인 | B | SE | t |
|--|--|-----|-----|----------|
| 거부민감성 | 내현적 자기애 | .08 | .01 | 12.46*** |
| | $F(1,398)=155.16$, $p=0.00$, $R^2=28.05$ | | | |
| 자기침묵 | 거부민감성 | .85 | .20 | 4.31*** |
| | 내현적 자기애 | .30 | .03 | 10.74*** |
| | $F(2,397)=127.12$, $p=0.00$, $R^2=39.04$ | | | |
| 우울감 | 거부민감성 | .29 | .13 | 2.17* |
| | 자기침묵 | .03 | .03 | .99 |
| | 내현적 자기애 | .22 | .02 | 10.42*** |
| $F(3,396)=88.68$, $p=0.00$, $R^2=40.18$ | | | | |
| 우울감 | 내현적 자기애 | .25 | .02 | 16.00*** |
| $F(1,398)=255.98$, $p=0.00$, $R^2=39.14$ | | | | |

* $p<.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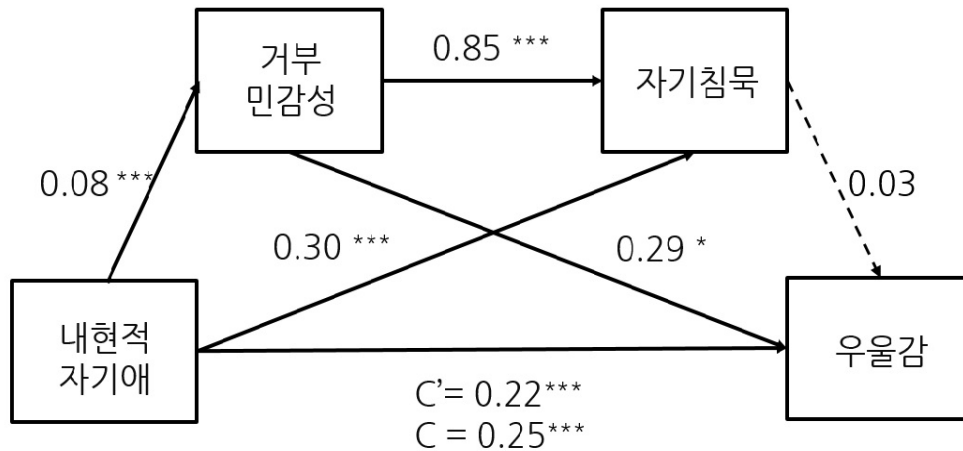
* $p < .05$, *** $p < .001$

그림 4.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모형



*** $p < .001$

그림 5.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모형



* $p < .05$, *** $p < .001$

그림 6.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의 매개모형¹⁾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이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Bootstrapping은 일종의 통계적 모의실험절차로 대규모의 가상적 무선표본을 만들어서 각각에 대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무선오차에 의한 결과가 아님을 확인하는 것이다. Bootstrapping은 신뢰구간을 제시하고 그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로 본다. Bootstrapping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 수는 1,000개였고,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 내현적 자기애가 거부민감성을 거쳐서 우울감으로 가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022$,

1) [그림 4,5,6] 주. c 는 매개변인이 없는 모형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비표준화계수, c' 은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이 매개변인으로 있는 모형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비표준화계수

95% Bias-corrected CI=.001, .045).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거부민감성 또한 높게 느껴 더 우울해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가 자기침묵을 거쳐 우울감으로 가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002$, 95% Bias-corrected CI=-.014, .037). 마지막으로 내현적 자기가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을 순차적으로 거쳐 우울감으로 가는 간접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010$, 95% Bias-corrected CI=-.003, .008).

표 8. 개별 매개효과의 Bootstrapping 검증결과

| 경로 (준거변인: 우울감) | Bootstrap 추정치 | | 95% 신뢰구간 | |
|-----------------------|---------------|------|-----------|-----------|
| | <i>B</i> | SE | Boot LLCL | Boot ULCL |
| 내현적자기에 → 거부민감성 → 우울감 | .022 | .012 | .001 | .045 |
| 내현적자기에 → 자기침묵 → 우울감 | .002 | .013 | -.014 | .037 |
| 내현적자기에→거부민감성→자기침묵→우울감 | .010 | .003 | -.003 | .008 |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성격 변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 변인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예상한 것과 같이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감, 거부민감성, 자기침묵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은 모든 변인 중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그 하위요인 중에서는 특히 ‘과민/취약성’ 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의 특징인 자기애적 취약성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를 남들에게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고 느끼게 하고,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하며, 자신에 대해 높은 기대치를 갖게 하여 자신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는 기존 연구결과(권희영, 홍혜영, 2010)와도 일치한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가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인해서 우울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들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김혜리, 김정민, 서영임, 2016; 강선희, 정남운, 2002; 박세란 외, 2005; 권석만, 한수정, 2000; 이준득 외, 2007; 이진숙 외, 2012; Wink, 1991a, 1991b). 반면, 우울감과 가장 낮은 정적 상관을 보인 변인은 자기침묵의 하위요인 중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 이었다. 자기침묵 변인이 여성의 우울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Jack, 1991)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기침묵과 우울감이 낮은 상관 결과를 나타낸 점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그러나 이지연과 김미영(2009)의 여성의 대상관계와 우울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도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 이 자기침묵의 다른 하위척도보다 우울감과 낮은 상관을 보인 것과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을 동시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에 대한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가 높고, 자기침묵이 높다는 최근 연구결과(김기남, 최보영, 201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결과들(김정남, 2015; 박우람, 홍상황, 2015; 임혜은, 한세영, 2016)과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지니며, 자기 몰입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하는 자극이나 상호작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로 인해 외부의 자극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과민하게 반응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관계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고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의 거부 경험에서 느끼는 부정적 정서를 당사자에게 직접 드러내지 못하고 억제하면서 반추한다(임혜은, 한세영, 2016).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겪는다는 연구들(최민경, 김종남, 2010; 최지영, 이영순; 2014; 홍서운, 2014)이 이를 지지한다.

정리하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극심한 불안을 느끼며 중립적인 단서를 더 쉽게 거부로 지각한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 관계에 있어 갈등을 더욱 빈번하게 경험하며 부정적 결과를 피하고자 노력하지만, 이러한 회피전략이 불안정하여 자기침묵을 경험한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감 사이에서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거부민감성의 부분 매개 효과가 유의하다.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감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거부민감성을 통해 간접적으

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하며, 타인의 비판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울감을 경험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들(박세란 외, 2005; 이상미, 이숙, 2009; 강선희, 정남운, 2002; 이진숙 외, 2012; Wink, 1991a, 1991b)과 맥을 같이한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성격적 취약성 때문에, 취약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멸이나 비판의 단서가 없는지 살피게 된다. 또한, 타인의 시선과 반응에 과도하게 신경 쓰고 위축된다(정남운, 2001).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자기애적 욕구가 좌절되는 상황에서 거부 단서에 몰두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몰입은 자신에 대해 부족하고, 부적절감을 느끼게 하며 반복적으로 반추하게 하여 쉽게 우울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내현적 자기가 높은 사람은 거부민감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단서에 몰두하고, 더 많은 불화를 경험하며 그로 인해 관계의 안정성이 감소하여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내현적 자기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에서 우울감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자기침묵의 매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침묵과 우울감의 관련성을 증명한 선행연구들(Cramer & Thoms, 2003; Duarte & Thompson, 1999; Whiffen Foot & Thompson, 2007)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선행연구들은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거절상황에서 타인을 비난할수록 우울감 수준이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이 도리어 관계를 훼손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거부를 더욱 유발한다는 것이다(Metcalf & Mischel, 1999; Downey & Freitas, 1998; 류혜라, 박기환, 2014). 또한, 갈등상황에서 분노를 표현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부상황에 직면하게 되기에, 이러한 악순환은 그들의 우울증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된다

(Melinda & Joseph, 2006). 다시 말하면, 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경우, 관계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관계의 고립과 우울감을 일으킨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억제하는 자기침묵은 실제 표면적인 관계의 손상을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에 우울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라는 성격특성이 우울감을 일으키는지 기제를 확인하고 우울감과 관련된 변인들의 역동을 더욱 폭넓게 이해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거의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나 사회불안과 같은 변인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우울감을 예측하는 심리 내적 요인으로서 기존 연구에서 미흡했던 자기침묵과 거부민감성이라는 변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매개 변인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이중매개모형을 사용, 검증함으로써 내현적 자기애, 거부민감성, 자기침묵, 우울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울증세를 보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심리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우울감을 경험하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어떠한 기제로 우울감을 경험하는지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이나 상담의 개입 방향과 순서를 정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기애 성향은 생애 초기부터 형성되어 굳어진 성격의 차원이므로 단기간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그러므로 우울한 대학생의 치료 및 상담이 충분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정 가능한 요인들을 우선으로 파악하여 개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배정이, 김윤정, 2009).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대학생들이 우울감을 경험하

는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매개하는 요인을 밝힌 본 연구는 대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우울감에 개입할 때에는, 관계유지를 위한 전략인 자기침묵 보다는 거부민감성과 같은 매개변인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용이한 개입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거부민감성이 부정적인 자기 몰두와 반추의 특성을 가지므로 내현적 자기에 높은 대학생들은 거부민감성으로 인해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대인관계 맥락에서 우울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시도할 때는 내담자에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관계, 정서, 심리상태 등 전반적으로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고 상담 장면에서 거절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충분히 수용하고 다룰 수 있도록 세심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 ‘내현적 자기에’, ‘거부민감성’ 모두 부모의 병리적인 양육태도가 주요한 발생 원인이었다. 따라서 자녀의 성격, 정서 특성을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 행동 및 거부적 양육태도, 과보호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와 거부민감성이 자녀의 우울감 또한 예측함에 따라 부모의 온정적이고 일관적인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확인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는 자녀의 정서특성, 특히 자녀의 문제에 대한 대처, 사회적 관계에서의 정서 인식이나 실제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 유무에 영향을 미칠 내현적 자기에와 거부민감성에 대해 부모의 전반적인 양육태도를 통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의 양육 코칭 또는 부모 상담에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자기침묵의 하위요인인 ‘자기희생을 통

한 돌봄' 과 우울감의 상관성이 가장 낮았고, 매개모형의 경로에서도 자기침묵과 우울감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는 타인을 위한 인고와 희생이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최상진, 정태연, 2001), 특히 개인주의적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서표현을 더 많이 억제하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기침묵의 기제가 서양 문화권과는 달리 신중함이나 겸양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우리 문화를 고려할 때, Jack(1991)이 제시한 자기침묵의 개념이 재평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신의 모든 정서를 느끼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정서는 억제하는 편이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고 조화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침묵의 적응적인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기에 성향자들은 자신이 취약하지 않다고 긍정적 착각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Akhtar & Thompson, 1982). 특히 평가와 비판에 예민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가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 응답하여 반응에 왜곡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바람직성의 반응양식을 측정하거나 자기방어, 긍정적 착각 등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임상 집단이 아닌 일반 대학생으로 본 연구결과가 내현적 자기에와 우울감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겠고, 내현적 자기에나 우울감 수준에 따른 집단별 비교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하면 더욱 정교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울감은 성별, 나이, 문화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역기능

적 대처 양식으로 분류된 자기침묵에 대해서는 본 연구결과와 같이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해 엇갈린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기표현양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 좀 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울감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흔히 나타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빈도가 더욱 높아진다(양선미, 박경, 2011). 또한, 외국 선행연구에서도 우울감과 자기침묵의 상관관계에는 성차가 나타났고, 질적 연구들도 자기침묵의 의미나 자기침묵의 동기에 대해서 성차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모집 대상에서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2009). 2008학년도 학생생활상담소 상담 호 소문제 분석. **학생생활상담, 27**, 서울: 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 강문선, 이영순 (2011).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내면화된 수치심과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5), 1545-1560.
- 강석화, 나동석 (2013). 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4), 49-71.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강예모, 김정규 (2012).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의식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2**(3), 331-348.
- 곽유미 (2015). 대학생의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 자기제시 동기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중다매개효과. **인간이해, 36**(2), 1-19.
- 구현경, 김종남 (2014). 내현적 자기애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 부적응적 완벽주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609-636.
- 권석만 (2003). **침체와 절망의 늪 우울증**. 서울: 학지사.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지나친 자기사랑의 함정**. 서울: 학지사.
- 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627-642.
- 권희영, 홍혜영 (2010).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023-1048.

- 김기남, 최보영 (2017).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에 및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교육방법연구**, 29, 121-141.
- 김나영, 조유진 (200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개념의 매개 효과. **인간발달연구**, 16(3), 149-162.
- 김소연, 고영건 (2016). 내현적 자기에와 외현적 자기에가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동서정신과학**, 19(1), 19-34.
- 김영수, 신희천 (2012). 자기불일치가 대인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 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2), 745-760.
- 김윤정 (2014). 연구논문: 5 요인 성격특성이 미용전공 여대생의 스트레스 정도와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20(1), 91-100.
- 김은주, 최경원 (2012). 대학생의 우울과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9(2), 231-239.
- 김정균, 장석진 (2014).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791-810.
- 김정남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와 자살사고와의 관계: 자기비난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3), 77-96.
- 김정미, 조현재 (2009).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비난 및 의존성의 역할. **한국청소년연구**, 20(2), 283-306.
- 김현진, 한종철 (2004). 대학생의 우울 취약성과 자의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77-294.
- 김혜리, 김정민, 서영임 (2016).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가 우울과 편집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2(4), 165-182.
- 나빛나, 장성숙 (2016). 고등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우울 관계에서 수치심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 8(1), 1~23.

- 노명선, 전홍진, 이해우, 이효정, 한성구, 함봉진 (2006). 대학생들의 우울장애에 관한 연구: 유병율, 위험요인, 자살행동 및 기능장애. **신경정신의학**, 45(5), 432-437.
- 류경희, 홍혜영 (2014). 중학생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8), 157-183.
- 류혜라, 박기환 (2014).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적 정서조절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203-218.
- 박광희 (2008). 대학생 우울에 관한 예측모형 구축. **대한간호학회지**, 38(6), 779-788.
- 박민숙 (2014). 여자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우울의 관계: 주의조절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5(1), 35-51.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 · 내현적 자기애의 명시적, 간접적 귀인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465-474.
- 박송이, 채규만 (2012). 우울취약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능동적,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2(3), 349-368.
- 박우람, 홍상황 (2015).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정서조절, 질투와 시샘의 순차적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4(1), 1-23.
- 박우람, 홍상황. (2014).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애와의 중단적 인과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3), 455-477.
- 박장희, 정옥분 (2002). 복합순환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과 청년기 자아정체감발달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0), 49-63.
- 박재숙 (2011). ‘도피이론 (Escape Theory)’ 모형에 기반한 학교위험요인과 청소년 자살생각의 구조적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63(3), 5-27.

- 박재연, 김정기 (2014).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의 지지와 친구의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학연구**, 21(1), 167-189.
- 박혜련, 손은정 (2011).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이 이성관계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1(1), 234-234
- 배정미, 김윤정 (2009). 청소년 우울의 인과적 구조분석. **스트레스연구**, 17(3), 295-305.
- 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1001-1017.
- 보건복지부 (2015). **지역사회건강조사**. 서울: 저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11). **2011년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보건복지부.
- 송지향, 임영진 (2015). 인간이해: 대학생의 문제해결 자신감과 우울 증상의 관계: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6(1), 103-115.
-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2013). 2013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분석. **학생생활연구**, 35,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 신동주, 정남운 (2006). 여대생 집단에서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평가에 대한 두려움, 신체상 만족도가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6(1), 506-507.
- 양선미, 박경 (2011). 청소년의 자기애 성향이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79-100.
- 양지윤 (2006). 애착 유형, 자존감, 자기침묵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인 여성 표본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고은, 방희정 (2011).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103-122.

- 이경주, 황순택 (2013). 청소년의 자기애성 성격, 사회적 거절 민감성 그리고 비행행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1), 251-251.
- 이경주, 황순택, 정다원 (2015). 청소년의 자기애성 성격과 비행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거절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26(4), 45-64.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 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미, 이숙 (2009). 내현적 자기애와 청소년의 우울 및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13(2), 15-28.
- 이인재, 양난미 (2015). 대학생의 자존감과 연애 관계만족간의 관계에서 거부 민감성과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3(1), 179-198.
-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463-477.
- 이지연, 김미영 (2009). 여성의 대상관계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검증. **여성연구**, 76, 201-226.
- 이지원, 장은영 (2011). 외현, 내현적 자기애 그리고 자기고양동기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2), 441-458.
- 이진숙, 현명호 (2012). 내현적 자기애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소극적 대처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4), 161-181.
- 이화인 (2008). 간호대학생의 자존감 및 우울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2(1), 97-107.
- 이훈진 (2000). 분노표현양식과 편집증 및 우울의 관계. **한국임상심리학회지**, 19(3), 427-438.

- 이훈진 (2000). 편집 집단과 우울 집단의 사회적 추론. **한국임상심리학회지**, 19(3), 439-451.
- 이희경, 김경희, 이홍권 (2014). 거부민감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97-121.
- 임정민, 오경자 (2016). 거부민감성이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2(2), 183-195.
- 임혜은, 한세영 (2016). 학령후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에가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아동학회**, 37(4), 129-143.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에 척도 (th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정수인, 오인수 (2014). 신체장애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비장애자녀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內現的) 자기에와 부모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5(2), 887-901.
- 정신아 (2013). **거절민감성과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맹제, 박종익, 배안, 배재남, 손정우, 안준호, 정인원 (2011).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건복지부
- 조맹제, 장성만, 함봉진, 정인원, 배안, 이영문 (2006). **한국 주요정신장애의 유병률 및 관련요인**, 143-52.
- 조영재, 이동훈 (2013). 남자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4), 845-866.

- 조은영, 곽은희 (2012). 실패 피드백 이후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분노와 분노표현 양식. **재활심리연구**, 19(3), 583-599.
- 최민경, 김종남 (2010). 청소년의 자기에 성향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탄력성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747-763.
- 최상진, 정태연 (2001). 인고(忍苦)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7(2), 21-38.
- 최지영, 이영순 (2014).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에, 분노표현양식 및 공감능력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1(1), 77-95.
- 최태은, 이유리 (2015). 대학생활스트레스, 회피대처, 정신건강의 구조적 관계와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분석. **미래사회복지연구**, 6(2), 63-88.
- 하은혜, 곽진영 (2010). 청소년의 자기에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3), 315-331.
- 홍명숙, 어주경 (2013).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기에, 공감능력,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4(6), 3911-3928.
- 홍상황, 이은주 (2014).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사회적 억제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3(1), 49-69.
- 홍서윤 (2014).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73-95.
- 홍영미, 성현란 (2012). 대학생의 기질 및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이 외현적·내재적 자기에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4), 35-48.
- 홍예진, 박주희 (2015).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3(2), 189-210.

- 홍진이, 한기백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5), 367-389.
- Aalsma, M. C., Lapsley, D. K., & Flannery, D. J. (2006). Personal fables, narcissism, and adolescent adjustment. *Psychology in the Schools*, *43*(4), 481-491.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2012).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National College Health Assessment II: Undergraduate Reference Group Executive Summary Spring 2012. *Hanover, MD: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60*(8), 556-561.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SM 5: Diagnostic and statistic manual of mental disorders.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nastasopoulos, D. (2007). The narcissism of depression or the depression of narcissism and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y*, *33*(3), 345-362.
- Atlas, G. D., & Them, M. A. (2008). Narcissism and sensitivity to criticism: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urrent Psychology*, *27*(1), 62.
- Ayduk, O., Downey, G., & Kim, M. (2001).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7), 868–877.

- Ayduk, O., Downey, G., Testa, A., Yen, Y., & Shoda, Y. (1999). Does rejection elicit hostility in rejection sensitive women?. *Social Cognition*, 17(2), 245–271.
- Ayduk, O., Gyurak, A., & Luerssen, A.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rejection-aggression link in the hot sauce paradigm: The case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3), 775–782.
- Ayduk, O., Gyurak, A., & Luerssen, A. (2009). Rejection sensitivity moderates the impact of rejection on self-concept clar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11), 1467–1478.
- Ayduk, O., May, D., Downey, G., & Higgins, E. T. (2003). Tactical differences in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The role of prevention prid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435–448.
- Baldwin, M. W. (1994). Primed relational schemas as a source of self-evaluative reac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4), 380–403.
- Barry, C. T., Chaplin, W. F., & Grafeman, S. J. (2006). Aggression following performance feedback: The influences of narcissism, feedback valence, and comparative standar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1), 177–187.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
- Beck, A. T. (1963). Thinking and depression: I. Idiosyncratic content and cognitive distortion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9(4), 324–333.
- Beck, A. T., Epstein, N., Harrison, R. P., & Emery, G. (1983). Development of the Sociotropy–Autonomy Scale: A measure of personality factors in psychopatholog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 Bergevin, T. A. (2003). *Approaching rejection sensitivity from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predicting romantic maladjustment, targets of romantic attraction and depression in middle adolescence* (Doctoral dissertation, Concordia University).
- Besser, A., Flett, G. L., & Davis, R. A. (2003). Self-criticism, dependency, silencing the self, and loneliness: A test of a mediational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8), 1735–1752.
- Blatt, S. J. (1974). Levels of object representation in anaclitic and introjective depression.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 Blatt, S. J., & Zuroff, D. C. (1992). Interpersonal relatedness and self-definition: Two prototypes for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2(5), 527–562.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vol. 2).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Basic books.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35.

Bretherton, I. (1987). New perspectives on attachment relations: Security, communication, and internal working models.

Brown, G. W., & Harris, T. (1978). Social origins of depression: a reply. *Psychological Medicine*, 8(4), 577–588.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19.

Campos, R. C., Besser, A., Abreu, H., Parreira, T., & Blatt, S. J. (2014). Personality vulnerabilities in adolescent suicidality: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distress.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78(2), 115–139.

Carr, J. G., Gilroy, F. D., & Sherman, M. F. (1996). Silencing the self and depression among women: The moderating role of ra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3), 375–392.

Collins, D. R., & Stukas, A. A. (2008). Narcissism and self-presenta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accountability and contingencies of self-worth.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6), 1629–1634.

- Cooper, A. (1998).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E. Ronningstam (Ed.),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pp.53–7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 Cooper, A. (2000).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Disorder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 London: Jason Aronson Inc.
- Cooper, A. M., & Ronningstam, E. (1992).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psychiatric press review of psychiatry*.
- Corey, B., Melissa, S. D., & Rachael, M. P. (2006). *Social antecedents and consequence of interpersonal rejection sensitivity*. Department of Social Science, Southwest minnesota State University, Marshall, MN 56258, United States.
- Cramer, K. M., & Thoms, N. (2003). Factor structure of the silencing the self scale in women and m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3), 525–535.
- David R. Reetz, Carolyn Bershada, Peter LeViness, & Monica Whitlock. (2016). The association for university and college counseling center directors annual survey. Association for University and College Counseling Center Directors.
- Dickinson, K. A., & Pincus, A. L. (2003).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7(3), 188–207.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
- Downey, G.,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7(1), 45–61.
- Downey, G., Freitas, A. L., Michaelis, B., & Khouri, H. (199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close relationships: rejection sensitivity and rejection by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545.
- Downey, G., Lebolt, A., Rincon, C., & Freitas, A. L. (1998). Rejection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4), 1074–1091.
- Downey, G., Mougios, V., Ayduk, O., London, B. E., & Shoda, Y. (2004).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defensive motivational system: Insights from the startle response to rejection cues. *Psychological Science*, 15(10), 668–673.
- Duarte, L. M., & Thompson, J. M. (1999). Sex differences in self-silencing. *Psychological reports*, 85(1), 145–161.
-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1–17.
- Erozkan, A. (2009). Rejection sensitivity levels with respect to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parenting styles: A study with Turkish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7(1), 1–14.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01), 231–247.
- Flett, G. L., Besser, A., Hewitt, P. L., & Davis, R. A. (2007). Perfectionism, silencing the self,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5), 1211–1222.
- Freud, S. (1914). Remembering, repeating and working-through (Further recommendations on the technique of psycho-analysis II). *Standard edition*, 12, 145–156.
- Gabbard, G. O. (1989). Two subtype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 Gabbard, G. O. (1998). Transference and counter transference in the treatment of narcissistic patients.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125–145.
- Garnefski, N., Teerds, J., Kraaij, V., Legerstee, J., & van den Kommer, T. (2004).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depressive symptoms: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2), 267–276.
- Gerrig, R. J., & Zimbardo, P. (2008). *Psychologie* (18. Auflage).
- Gersten, S. P. (1991).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consists of two distinct subtypes. *Psychiatric Times*, 8, 25–26.
- Gotlib, I. H., & Hammen, C. L. (1992). Psychological aspects of

depression. *Toward a Cognitive–Interpersonal Integration*.
England: John Wiley & Sons.

- Grant, A. M., Franklin, J., & Langford, P. (2002). The self–reflection and insight scale: A new measure of private self–consciousnes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0(8), 821–835.
- Gratch, L. V., Bassett, M. E., & Attra, S. L. (1995). THE RELATIONSHIP OF GENDER AND ETHNICITY TO SELF-SILENCING AND DE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4), 509–515.
- Hamamura, T., & Laird, P. G. (2014).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acculturative stress on levels of depression experienced by East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42(4), 205–217.
- Harper, M. S., Dickson, J. W., & Welsh, D. P. (2006). Self–silencing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3), 435–443.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588–599.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
- Hewitt, P. L., & Flett, G. L. (2004).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 Technical manual. MHS.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
- Jack, D. C. (1991). *Silencing the self: Women and depression*(pp.128–183). New York : Harper Collins.
- Jack, D. C. (2001). Understanding women's anger: A description of relational pattern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22*(4), 385–400.
- Jack, D. C., & Dill, D. (1992). The Silencing the Self Scale: Schemas of intimacy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6*(1), 97–106.
- Joiner, T., Coyne, J. C., & Blalock, J. (1999). On the interpersonal nature of depression: Overview and synthesis.
- Kaplan, A. (1986). The "self-in-relation": Implications for depression in wome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23*(2), 234.
- Kernberg, O. F. (1975). A systems approach to priority setting of interventions in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25*(3), 251–275.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Madison. *Connecticut: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Inc.*
- Kraus, G., & Reynolds, D. J. (2001). The “AB-C's” of the Cluster B's: Identifying, understanding, and treating Cluster B personality disorde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3),

345–373.

- Lapsley, D. K., & Aalsma, M. C. (2006). An empirical typology of narcissism and mental health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9*(1), 53–71.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Rejection sensitivity: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processes. *Interpersonal rejection, 251–289*.
- Lewinsohn, P. M. (1984). *The coping with depression course: A psychoeducational intervention for unipolar depression*. Castalia Public. Company.
- London, B., Downey, G., Bonica, C., & Paltin, I. (2007).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3), 481–506.
- Luterek, J. A., Harb, G. C., Heimberg, R. G., & Marx, B. P. (2004). Interpersonal rejection sensitivity in childhood sexual abuse survivors: Mediator of depressive symptoms and anger supp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1), 90–107.
- Lyubomirsky, S., & Nolen-Hoeksema, S. (1995). Effects of self-focused rumination on negative thinking and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1), 176.
- Lyubomirsky, S., Tucker, K. L., Caldwell, N. D., & Berg, K. (1999). Why ruminators are poor problem solvers: clues from the phenomenology of dysphoric ru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5), 1041.

- Marston, E. G., Hare, A., & Allen, J. P. (2010). Rejection sensitivity in late adolescence: Social and emotional sequela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4), 959–982.
- Mehdizadeh, S. (2010). Self-presentation 2.0: Narcissism and self-esteem on Facebook. *Cyber 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3*(4), 357–364.
- Mellin, E. A. (2008). Rejection sensitivity and college student depression: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counseling.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1*(1), 32–41.
- Metcalfe, J., & Mischel, W. (1999). A hot/cool-system analysis of delay of gratification: dynamics of willpower. *Psychological review, 106*(1), 3.
- Miller, A. (1979). Depression and grandiosity as related forms of narcissistic disturbances.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o-Analysis, 6*, 61–76.
- Millon, T. (1985). *Personality and its disorders: A biosocial learning approach*. John Wiley & Sons Incorporated.
- Mor, N., & Inbar, M. (2009). Rejection sensitivity and schema-congruent information processing bias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3), 392–398.
- Morf, C. C., & Rhodewalt, F. (2001). Unraveling the paradoxes of narcissism: A dynamic self-regulatory processing model. *Psychological inquiry, 12*(4), 177–196.
- Noble, C. L., Ashby, J. S., & Gnilka, P. B. (2014).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coping, and depression: Differential prediction of

- depression symptoms by perfectionism type.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7*(1), 80–94.
- Nolen–Hoeksema, S. (2000). The role of rumination in depressive disorders and mixed anxiety/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3), 504.
- Orsillo, S. M., Batten, S. V., Plumb, J. C., Luterek, J. A., & Roessner, B. M. (2004). An experimental study of emotional responding in women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related to interpersonal violenc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3), 241–248.
- Page, J. R., Stevens, H. B., & Galvin, S. L. (1996).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self–esteem, and self–silencing behavio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5*(4), 381–396.
- Peleg–Sagy, T., & Shahar, G. (2015). Female Medical Students'(Silencing the) Self: Effects on Depression and Dyadic/Sexual Dissatisfaction. *Self and Identity, 14*(4), 420–440.
- Pinto-Gouveia, J., Matos, M., Castilho, P., & Xavier, A. (2014). Differences between depression and paranoia: the role of emotional memories, shame and subordination.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1*(1), 49–61.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Purdie, V., & Downey, G.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adolescent girls' vulnerability to relationship-centered difficulties. *Child Maltreatment, 5*(4), 338–349.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Psychological Management, 1*, 385–401
- Rapee, R. M., & Abbott, M. J. (2007). Modelling relationships between cognitive variables during and following public speaking in participants with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12), 2977–2989.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
- Rathvon, N., & Holmstrom, R. W.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1–19.
- Remen, A. L., Chambless, D. L., & Rodebaugh, T. L. (2002). Gender differences in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Silencing the Self Sca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2), 151–159.
- Robbins, S. B., & Dupont, P. (1992). Narcissistic needs of the self and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462–462.
- Romero-Canyas, R., Downey, G., Berenson, K., Ayduk, O., & Kang, N. J. (2010).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rejection-hostility link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78*(1),

119–148.

- Rusbult, C. E., Bissonnette, V. L., Arriaga, X. B., Cox, C. L., & Bradbury, T. N. (1998). Accommodation processes during the early years of marriage. *The developmental course of marital dysfunction*, 74–113.
- Rutter, M. (1989). Pathways from childhood to adult lif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1), 23–51.
- Sakellaropoulo, M., & Baldwin, M. W. (2007). The hidden sides of self-esteem: Two dimensions of implicit self-esteem and their relation to narcissistic reac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6), 995–1001.
- Schurman, C. L. (2000). Social phobia and covert narciss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right institute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 Sedikides, C., Campbell, W. K., Reeder, G., Elliot, A. J., & Gregg, A. P. (2002). Do others bring out the worst in narcissists? The “others exist for me” illusion. *Self and identity: Personal, social, and symbolic*, 103–123.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roufe, L. A. (1997). *Emotional development: The organization of emotional life in the early yea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ydenham, M., Beardwood, J., & Rimes, K. A. (2017). Beliefs about Emotions, Depression, Anxiety and Fatigue: A Mediational

- Analysis.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1–6.
- Thomas, K. K., & Bowker, J. C. (2015). Rejection sensitivity and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Do friendship self-silencing and parent support matter?.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3), 608–616.
- Thompson, J. M. (1995). Silencing the self: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close relationship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 337–353.
- Thompson, J. M., Whiffen, V. E., & Aube, J. A. (2001). Does self-silencing link perceptions of care from parents and partners with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8(4), 503–516.
- Uebelacker, L. A., Courtnage, E. S., & Whisman, M. A. (2003). Correlates of depression and marital dissatisfaction: Perceptions of marital communication styl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6), 757–769.
- Ussher, J. M. (2004). Premenstrual syndrome and self-policing: Ruptures in self-silencing leading to increased self-surveillance and blaming of the body. *Social Theory & Health*, 2(3), 254–272.
- Vaillant, G. (2002). *Aging well: Surprising guideposts to a happier life*. Scribe Publications.
- Valiente, C., Romero, N., Hervas, G., & Espinosa, R. (2014). Evaluative beliefs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onding and symptoms of paranoia and depression.

Psychiatry research, 215(1), 75–81.

- Watson, L. B., & Grotewiel, M. (2016). The Protective Role of Commitment to Social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Sexist Experiences and Self-Silencing. *Sex Roles*, 75(3–4), 139–150.
- Watson, P. J., Sawrie, S. M., Greene, R. L., & Arredondo, R. (2002). Narcissism and depression: MMPI-2 evidence for the continuum hypothesis in clinical samp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9(1), 85–109.
- Watson, P. J., Taylor, D., & Morris, R. J. (1987). Narcissism, sex roles, and self-functioning. *Sex Roles*, 16(7–8), 335–350.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 Whiffen, V. E., Foot, M. L., & Thompson, J. M. (2007). Self-silencing mediates the link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depress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4(6), 993–1006.
- Wink, P. (1991). Self-and Object-Directedness in Adult Women Paul Wink. *Journal of Personality*, 59(4), 769–791.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Wood, J. G., Joyce, P. R., Miller, A. L., Mulder, R. T., & Kennedy, M. A. (2002). A polymorphism in the dopamine β -hydroxylase gene is associated with “paranoid ideation”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on. *Biological psychiatry*, 51(5), 365–369.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silenc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Covert Narcissism and Depression

Park, Sun Young
Department major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 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on depression through the serial dual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silencing. four hundred undergraduates were asked to complete questionnaires about covert narcissism, depressed mood,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silenc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overt narcissism, depressed mood,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silencing. Second, rejection sensitivity was demonstrated to mediate with 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epressed mood, while self-silencing was not. It means that a serial dual mediating path(from covert narcissism to depressed mood, through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silencing) is

meaningless.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overt narcissism, depression, rejection sensitivity, self-silencing

부 록

부록 1. 내현적 자기에 척도

(Covert Narcissism Scale: CNS)

부록 2. 우울감 척도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부록 3. 거부민감성 척도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

부록 4. 자기침묵 척도

(Silencing-The-Self Scale: STSS)